

천장 없는 원·달러 환율... 연내 '1500원' 시대 열리나

美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상치 상회
15일 연고점 경신... 장중 1397.8원
금융권, 1500원 돌파 전망 줄이어

미국의 물가 충격으로 환율이 연이어 급등하고 있다. 시장에서 연말 1500원을 넘을 것이라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장 중 한때 1397.8원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4월1일(고점 1422원) 이후 13년5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 14일에는 1390.9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미 노동통계국은 지난 13일(현지시간)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8.3% 올랐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8.0%, 다우존스 기준)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였으나 시장은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에 더 주목하고 있다.



1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411.42)보다 9.59포인트(0.4%) 내린 2401.83에,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82.93)보다 1.55포인트(0.2%) 내린 781.38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90.9원)보다 2.8원 상승한 1393.7원에 마감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이에 외환당국은 급등하는 환율을 막기 위해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 공식 구두개입에 나섰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최근 대외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 내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

의에서 “현재 환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쪽으로 과도한 쏠림이 있거나 불안심리가 확산할 경우 필요한 시

점에 적절한 시장안정조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다음 주 열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1%포인트를 올리는 울트라스텝가

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연말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추락해 외국인 자금 유출이 가팔라질 것”이라며 “동절기로 가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올해 안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물가 쇼크로 미 Fed가 강도 높은 긴축을 지속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면서 달러화 강세가 심화하고 있다”며 “다음 주 미 FOMC 때까지 시장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연말 침체 위기까지 같이 온다면 환율은 15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수입만큼 씹씹이 커진 韓 나라살림 적자 100조 육박

세수 호조... 전년비 37.1조 더 견혀
2차 추경 등 지출 규모도 큰 폭 증가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 호조에도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집행으로 총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7월까지 국가채무도 1022조원으로 불어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견인 국세수입은 총 261조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1000억원 더 들어왔다.

이 중 법인세가 6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9000억원 더 견혔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돼 영업이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소득세도 80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조3000억원 늘었다.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소득이 늘고, 상용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더 견혔다.

부가가치세도 62조9000억원으로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달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39조원으로 편성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20조 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영향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도 6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수가 호조를 보이며 7월까지 총수입은 39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 1000억원 늘어났다. 동시에 2차 추경 집행 등으로 총지출은 450조4000억원, 전년보다 72조8000억원 불어났다.

이로 인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6조3000억원 적자가 났고, 적자 폭도 35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 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9조9000억원 더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학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기재부는 “추경 사업 지출 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전년에 비해 악화됐으나 7월 수입 증가, 지출 감소로 전월 대비로는 개선됐다”며 “연말까지 -110조 8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100조를 넘어선 나라빚은 7월까지 1022조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를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주요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안보보험 시그니처가 될 겁니다

SIGNATURE

한화생명이 안만큼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한화생명의 시그니처가 될 안보보험 지금 시작합니다

한화생명 시그니처 안보보험(무)

www.hanwhalife.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2-02013호(2022-04-12 ~ 2023-04-11)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2-04-015

안보보험 가입일은 가입 후 91일부터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본 상품은 비갱신형 또는 갱신형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 시 20년만기 갱신 또는 30년만기 갱신 중 선택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100세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 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